

## 참고문헌

-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서울: 기독교문사, 1980.
- 김병조. “독립단 통고문,”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하이, 1920.
- 김학중. 『한국교회 부흥의 꽃을 피운 초석:길선주』 서울: 넥서스Cross, 2010.
- 김형석. “3.1운동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기독교사상』 35 (1991): 37-48.
-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 『신학지남』 77 (2010): 95-136.
- 송건호. “3.1운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23 (1979): 60-67.
- 신용하.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기독교사상』 28 (1984): 128-40.
- 윤경로. 『105인사전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 윤경로. “신민회와 남강의 경제활동 연구,”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 서울: 남강문화재판출판부, 1988, 74-117.
-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3-156.
- \_\_\_\_\_. 『초기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이만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 『기독교사상』 34 (1990): 113-32.
- \_\_\_\_\_.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7-20.
-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 (2018): 301-330.
- 총회역사 위원회 및 삼일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예배 예식서 및 주간 말씀 묵상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2019.

## 특집 2

야고보서 5:7-12와 3.1 운동에 찰떡궁합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

The Posture of Patience that James 5:7-12 suggests to the Christians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주기철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39
2.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설정(5:19-20) | 42
3. 야고보서 5:1-6(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 47
4. 의인이 안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5:7-12) | 55
5. 요약과 적용 | 62
  - 5.1 기록목적과 문맥 | 62
  - 5.2 의인이 안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 | 63
6. 나가면서(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 65

## 야고보서 5:7-12 |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

20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8-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으로 이후 1년여 간 국내외에서 지속된 항일 민족독립운동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진압은 무자비했는데, 일제의 펫박과 학살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1919년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독립 운동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회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을 뿐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 속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으로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독립단 통고문’에 포함된 성경구절 중에서 야고보서 5장, 특히 야고보서 5:7-12를 살피려고 한다.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목적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음으로 5:7-12이전의 문맥을 살핀 후에 저자가 5:7-12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를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인내의 자세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 5장은 시련을 당하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야고보서 5:7-12에서 저자가 권하는 것은 시련 중에 단순히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The Posture of Patience that  
James 5:7-12 suggests to the  
Christians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주요어

3.1 운동, 야고보서 5:7-12, 시련, 독립단 통고문, 주의 이름으로 말함

**Abstract**

The Posture of Patience that James 5:7-12 suggests to the Christians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Prof. Dr. Ki-chul Joo

2019 marks the centennial of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large-scale independence movement that took place in March 1, 1919, simultaneously in eight or nine reg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Seoul, in order to declar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has continued for more than a year. The Japanese crackdown on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ruthless, with the Japanese oppression and slaughter particularly focused on Christians. This may be because so many Christians were involved in the movement as 16 out of 33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were Christian leaders at that time. The Christian Council has distributed leaflets called 'independent notice' to allow Christians to continue their independence movement in life. The content includes three-time prayers every day, fasting on Sundays, reading the Bible every day, but reading it in order: Isaiah 10 on Monday, Jeremiah 12 on Tuesday, Deuteronomy 28 on Wednesday, James 5 on Thursday, Isaiah 59 on Friday and Romans 8 on Saturday.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James 5, especially 5:7-12 which was one of the bible passages included in the ‘independent noti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is text, we will first examine what the purpose of James is; then the preceding context of 5:7-12. Afterwards, we will find out what the author is trying to say through 5:7-12; try to think of how the Christians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March First Movement would apply this passage to their lives. In general, James 5 was understood as encouraging prayers and patience to Christians at the time of the trials. This study, however, will argue that what the author suggests in James 5:7-12 is not simply to persevere, but also to speak in the name of the Lord (based on the truth) during the time of trials.

#### Keywords

The March First Movement, James 5:7-12, Trials, Independent Notice, Speak in the name of the Lord.

## 1. 들어가면서

20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울의 파고다공원 및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8-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 그리고 이후 1년여 간 국내외에서 지속된 항일 민족독립운동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sup>1)</sup>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진압은 무자비 했다. 일제는 평화적 만세운동을 벌인 민중에게 현병과 경찰, 군대를 동원해 인명을 살상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했다. 전국에서 학살과 방화 사건이 잇달았다(대표적인 사건은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교회 사건이다). 일제 측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5월간 46,948명이 체포 및 투옥되었고, 2만 여명의 사람들이 미결수 혹은 기결수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5,900여 명이 부상당했고, 7,500여 명이 살해당했다. 47개의 예배당과 2개의 학교, 715채의 한국인 민가가 방화로 소각 당했다고 한다.<sup>2)</sup>

3.1운동과 관련하여 일제의 팝박과 학살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한다. 이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19년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독립 운동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sup> 기독교회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을

1)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교회,” 『2019 기윤실 회원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강연집』 (2019), 1.

2)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교회,” 2.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제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0, 은 3.1운동 당시 투옥된 한국인들 중에 불교인이 1.2%, 천도교인이 15.1%인 반면 기독교인이 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34만 명(1700만 명 중의 2%)도 되지 않았다고 볼 때, 3.1운동으로 인한 전체 수감자 중에 기독교인이 22%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참고. 이상일, “2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2018), 306).

뿌려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전단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도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禁食)을 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以賽亞)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耶利米) 12장, 수요일은 신명기(申命記)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雅各)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羅馬) 8장으로 순환하여 독료할 것이니라.<sup>4)</sup>

이처럼 3.1운동 초기기에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 있다. 1937년 생존인 10인 중에 상해로 망명한 김병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계속 하지 않았다. 그 중에 2인은 명확하게 일제의 탄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해서 변절했고 1인은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변절의 의혹을 샀다.<sup>5)</sup> 이들 16인의 활동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활동의 근거가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와 같은 행동변화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추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3.1운동에 참여한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이후에 변절했을 가능성성이 있다는 말이다.

앞서 기독교회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을 뿌려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어쩌면 이러한 전단을 뿐린 것은 이후에 일어날 사람들의 변절을 예견한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4)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협사, 한국독립운동사학회 중심으로”『서울과 역사』99 (2018), 107, 각주 59.

5) 한규무, “기독교계 민족대표 중 누가 변절했는가,”『기독교사상』722(2019), 25,는 1937년 생존한 김병조,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신흥식, 오화영, 이갑성, 이명룡, 정춘수 중에 상해로 망명한 김병조는 항일운동을 지속했고 박희도, 정춘수는 확실히 ‘변절’했고, 이갑성은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 6인은 변절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항일운동은 계속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와 대비하며 ‘독립단 통고문’ 전단을 뿌렸기 때문이다.<sup>6)</sup> 특별히 이 전단 속에 포함된 성경구절과 관련하여 이만열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즉, 이사야 10장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것이고 예레미야 12장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 받아 고통 받게 되리라는 예언이고 야고보서 5장은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며, 이사야 59장은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다는 예언을 담고 있고, 끝으로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 곧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본다.<sup>7)</sup>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 당시 시련 중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본 글에서는 ‘독립단 통고문’에 포함된 성경구절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야고보서 5장이 시련을 당하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를 권면한다고 했는데, 본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할 것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야고보서 5장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면관계상 다 다를 수 없기 때문에 5:7-12을 살피면서, 저자가 권하는 것은 시련 중에 단순히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야고보서 5:7-1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목적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음으로 5:7-12이전의 문맥을 살핀 후에 저자가 5:7-12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를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인내의 자세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6)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교회,” 7-8.

7)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교회,” 8.

## 2.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설정(5:19-20)

일반적으로 서신의 맷음말에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암시하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서신의 본문을 요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서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sup>8)</sup> 야고보서의 맷음말(5:19-20)에는 바울서신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서신적 요소들(인사[greeting], 은혜 기원[grace benediction], 평강 기원[peace benediction] 등)이나 그 빈도수는 적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요소('송영'[doxology], '기쁨의 표현'[joy expression], '기도 요청'[request for prayer], '추신'[postscript])도 나타나지 않는다. 바울서신에서도 이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서신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 다른 요소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는 저자가 서신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epistolary context)에 따라서 그에 맞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요소들이 바울서신에서는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지만 공동서신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야고보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론에는 발신자(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와 수신자(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그리고 문안인사(문안노라)와 같은 서신적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맷음말에는 마무리 인사나 은혜기원, 또는 평강 기원 등과 같은 서신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8) G. J. Bahr, 'The Subscriptions in the Pauline Letters,' *JBL* 87 (1968), 27-41; J. A. D. Weima,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Sheffield: JSOT Press, 1994), 55-56, 76, 152-55, 237-39; F. O. Francis,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Opening and Closing Paragraphs of James and 1 John,' *ZNW* 61 (1970), 110-26; C. L. Blomberg and M. J. Kamell, *Jame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37.

9) H. Gamble, Jr., *The Textual History of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77); Weima, *Neglected endings*, 18-19.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서신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재로는 윤리적 내용이나 훈계를 기록한 유대와 헬리문학의 전통에 속한 권고양식(paraenesis)으로 보거나 구약의 잡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학으로 보기도 한다.<sup>10)</sup> 그러나 마샬(H. Marshall) 외의 학자들이 바르게 지적하듯이, 야고보서가 권고문학의 모든 특징들을 반영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지혜문학보다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 등의 사실을 볼 때 야고보서를 단순히 권고양식이나 지혜문학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sup>11)</sup> 더 나아가서 마샬은 야고보서가 바울서신과 같은 맷음말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야고보서처럼 감사나 개인적인 인사말이나 고별인사 없이 서신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야고보서도 주제의 연속성을 가진 서신으로 볼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sup>12)</sup>

야고보서의 맷음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겠지만,<sup>13)</sup> 5:19-20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왜냐하면 5:7은 '그러므로'(οὐ ν)로 시작하면서 여전히 앞의 단락과 연결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고, 5:12 역시 '무엇보다도'(Πρὸ πάντων)라는 표현이 진행 중인 논의를 계속하고

10) M. Dibelius, James (Philadelphia: Fortress, 1975), 1-7; R. W. Wall, 'James as Apocalyptic Paraenesis,' *RQ* 32 (1990), 11-22; G. Holloway, 'James as New Testament Wisdom Literature,' *Leaven* 8 (2000), 1-7.

11) 참고. I. H. Marshall, S. Travis and I.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A Guide to the Epistles and Revelation* (2nd ed., London: SPCK, 2011), 261-63. 야고보서와 유대주의적 지혜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R. P. Martin, *James* (Waco: Word Books, 1988), lxxxvii-xciii을 보라.

12) Marshall, Travis and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263-64,는 마카비 1서 10:25-45의 시리아 왕 데메트리우스(Demetrius)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예로 들면서 이 서신에는 고별인사가 없음을 지적한다.

13) 야고보서의 맷음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5:7-20(Marshall, Travis and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264; 비교. K. A. Richardson, *Ja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7], 49); (2) 5:12-20(D. J. Moo, *Jame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5], 219-38); (3) 5:19-20(Blomberg and Kamell, *James*, 26-27; 비교. Martin, *James*, 217-21) 등이다.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5:19은 호격인 ‘형제들아’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듯하다.<sup>14)</sup> 뿐만 아니라 5:19-20은 바울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의 특징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sup>15)</sup> 야고보서 5:19은 ‘만약’으로 시작하는 가정법이다(“나의 형제들아,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누군가가 그를 돌아키게 하면”). 그리고 5:20은 개역개정성경에서는 ‘너희가 알 것은’이라고 번역해서 평서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든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알게 하라[γίνωσκετω]!”고 하는 명령문이다. 만약 야고보서 5:19-20이 맷음 말이라면 저자는 다른 모든 요소를 생략하고 결론적 권면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서신의 상황, 곧 서신 전체에 명령형 동사가 54회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서신 전체에 명령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서신을 명령형으로 끝맺었을 것이라는, 단순히 일관성

14) 어떤 이들은 호격인 ‘형제들아’(ἀδελφοί)가 새로운 단락이나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표할 때 사용된다고 본다. 참고. D. A. Black, ‘The Literary Structure of 1 and 2 Thessalonians,’ *SBOT* 3/3 (1999), 51; J. A. D. Weima, *1-2 Thessalonians* (Grand Rapids: Baker, 2014);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575. 심지어 맷음말에서의 호격 ‘형제들아’(ἀδελφοί)의 사용은 마지막 권면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참고. Rom 16:17; 2 Cor 13:11; Phil 4:8; 1 Thess 5:25). L. A. Jervis, *The Purpose of Romans: A Comparative Letter Structure Investig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1), 134; Weima, *Neglected Endings*, 145.

15) 바울서신의 맷음말에 있는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의 보편적 특징은 (1)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참고. 고전 16:13-14, 22; 고후 13:11a; 갈 6:17; 빌 4:8-9; 롬 20; 골 4:16-17; 디전 6:17-20; 딤후 4:21a; 딜 3:12-14). (2) 어떤 경우는 ‘권하다’(παρακαλέω)는 동사(롬 16:17; 고전 16:15. 참고. 히 13:22)나 이와 유사한 ‘명하다’(όρκίζω)는 동사(살전 5:27)로 시작한다. (3) 어떤 경우는 호격 ‘형제들아’(ἀδελφοί)나 ‘형제’(ἀδελφέ)로 시작한다(롬 16:17; 고후 13:11; 빌 4:8; 살전 5:25; 롬 20). (4) 어떤 경우는 ‘끌으로’(Τὸ λοιπόν)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후 13:11; 갈 6:17; 빌 4:8). (5) 결론적 권면은 다른 서신적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와 특정 개인 또는 그룹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을 유지하는 문제 이상의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신의 본문에서 아무리 많은 명령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서신을 마무리할 때는 끝인사와 축복문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직 명령형을 통한 권면만 있을 뿐이다. 5:19-20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많은 시련을 당한 듯하다(1:2-4). 5:1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신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던 듯하다. 저자가 보편적인 형태의 인사와 축복 대신 마지막까지 명령하며 서신을 마무리한 것은 어쩌면 수신자들의 상황의 심각성과 그들이 가진 문제(issues)의 긴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면 이 결론적 권면은 야고보서의 기록목적과 관련하여 어떤 해석의 단서를 제공할까?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만약]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5:19)이라고 한다. 이는 가정법이지만 수신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미혹되다’(πλανηθῆναι)는 동사는 수동태로서 ‘미혹되다’(be led astray) 또는 ‘속다’(be deceived)는 의미를 가지는데, 수동태이지만 ‘중간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타락하다[벗어나다]’(‘one goes astray’ of one’s own accord)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6)</sup> 마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사용된 ‘떠나다’라는 동사 뒤에는

16) Blomberg and Kamell, *James*, 248. ‘미혹되다’(πλανηθῆναι)에 해당하는 단어는 야고보서 1:16(“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에도 사용되었는데, 야고보서 1:16이나 서신 전체를 보았을 때 ‘속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1:16의 경우도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두고 나를 시험하는 자로 여기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14).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1:15). 이를 두고 저자는

우상숭배 사상뿐 아니라 도덕적 이원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절 뒤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미 3:15과 4:7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것이 우연이나 무심결에 진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바르게 주장한다.<sup>17)</sup>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스스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마도 수신자들이 당하는 많은 시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신 초반부에 저자는 수신자들을 호칭하면서 ‘흩어져 있는’(ἐν τῷ διασπορᾷ; 엔 테 디아스포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이방인으로 살면서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음을 암시한다. 이를 반영하듯 저자는 인사말(1:1) 이후 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1:2a)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시련의 문제를 다룬다.<sup>18)</sup> 어쩌면 수신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서 스스로 미혹되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진리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었던 듯하다. 진리를 완전히 떠난 자들도 있었겠지만, 야고보서 본문은 그들이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설재로는 진리를 떠난 사람과 같이 행동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5:20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

수신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고보서 5:19의 경우도 어떤 외적 요인에 강조점이 있다기 보다 자기 스스로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다(참고. D. G. McCartney, *Jam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9], 263).

17) Martin, *James*, 218-19을 보라.

18)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의미가 모호한 ‘시험’보다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야고보서 1:2에서 ‘시험’ 또는 ‘시련’으로 번역된 원어(πειρασμός)는 문맥에 따라서 ‘시험’(temptation), ‘시험’(test), 또는 ‘시련’(trial)로 번역될 수 있다. 보다 더 깊은 논의는 주기철,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πειρασμός)과 ‘시련’(δοκίμιον)으로 번역된 단어 채고,” 『고신신학』 20(2018), 103-130을 보라.

‘죄인’이고 ‘영혼이 사망한 자’이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내 형제들아!), 그들 중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한 듯하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혹된 자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들이 지은 허다한 죄가 사함 받기를 원한다.<sup>19)</sup>

### 3. 야고보서 5:1-6(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 야고보서 5:7-12은 어떤 문맥에서 이해해야 할까? 저자는 5:1-6에서 믿지 않는 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압제받는 수신자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수신자들 중에 있는 부한 자들, 곧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두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믿지 않는 부한 자들처럼 사용하는 자들을 교훈하고 있다. 먼저 야고보서 5:1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로 시작하고, 5:7은 ‘그러므로 형제들아…참으라’로 시작하기 때문에 5장 전반부는 수신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특히 부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시련과 관련해서 기록한 듯하다. 그러나 수신자들이 부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시련만을 다룬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신자들 내에 포함되어 있을 법한 부한자들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믿음대로 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5:1의 ‘들으라’로 번역된 표현(ἀγε νῦν)이<sup>20)</sup> 현존하는 자들의 유익을

19) 5:20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1차적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유대 문헌에 죄인을 돌아오게 한 자가 죄 용서함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근거로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의 허다한 죄가 덮어질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자들도 있다. 참고. Blomberg and Kamell, *James*, 249.

위해서 현존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소위 ‘아포스트로피’(apostrophe)로 알려진 수사적 담화의 비유적 표현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sup>21)</sup> 즉,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지도 않는 압제하는 부자들을 거론하며 그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이들은 저자가 지칭하는 ‘부한 자들’이 ‘믿지 않는 부자들’이라고 주장한다.<sup>22)</sup> 메카트니도 이와 유사하지만, 그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곧 저자가 말하는 부자들은 믿는 부자도 아니고 보편적인 부자도 아닌,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sup>23)</sup> 이와 같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부자들에 관해 비난하는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sup>24)</sup>

야고보서의 저자는 분명 앞서 학자들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기록목적이 단순히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뿐 아니라 시련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5:1-6에서 지적하는 부한 자들 중에는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 있는 부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서신 전체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1:8; 4:8), 행함이 없는 믿음(2:14-26), 자신을 속이는 것(1:16, 22; 5:19),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문제(2:6), 차별하는 문제(2:1-4, 9), 싸움과 다툼과 살인의 문제(4:1-2),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 되는 문제(4:4), 형제를

20) 이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come now’(ESV; NASB; NRSV), ‘go to now’(KJV), ‘now listen’(NIV) 등으로 번역되었다.

21) C. H. Felder, “James” in *The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ed. William R. Farmer; Collegeville: Liturgical, 1998), 1799; Blomberg and Kamell, *James*, 220.

22) G. M. Stulac,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3), 162-63; P. H. Davids,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The Paternoster Press, 1982), 174-75; S. McKnight, *The Letter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2011), 383-84.

23) D. G. McCartney, *Jam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9), 232.

24) 참고. Moo, *James*, 201-202.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4:11-12)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1:9-11에서 수신자들 중에 있을법한 낮음과 높음(부함)의 문제 모두 시련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부자들처럼 행동하는, 두 마음으로 행하는 부한 자들이 있었음을 암시한다.<sup>25)</sup> 따라서, 5:1에서 언급한 부한 자들은 믿지 않는 부자들뿐 아니라 믿는 부자들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부한 자들로부터 압제받는 수신자들을 위로하면서 혹시나 그 중에 있을 부한 자들, 곧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교훈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먼저 부한 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들으라 부한 자들아!; 5:1) 그들이 맞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지자적 어조로 선언한다.<sup>26)</sup> 저자는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다.<sup>27)</sup> 본문은 이 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임은 분명하다.<sup>28)</sup> 야고보서 4:13에서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것처럼 그들에게 ‘고생’이 임하더

25) Richardson, *James*, 204,은 저자가 신자인 부자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된 것과 참 신자는 야고보서 5:2-6에서 묘사된 대로 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더 이상 신자가 아님(변절?)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 참고. S. Laws, *The Epistle of Jame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0), 194-98; P. J. Hartin, ‘Exegesis and Proclamation.’Come now, you rich, weep and wail...’(James 5:1-6), *JTS*A 84 (1993), 57-63.

26) 선지자적 어조라고 하는 이유는 5:1에서 사용된 표현들(‘울고 통곡하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애 1:1-2; 사 15:2-3; 렘 9:1; 13:17; 암 8:3 [8:9-10]; 사 13:6; 14:31; 렘 31:20, 31; 갤 21:12; 호 7:14). 참고. Martin, *James*, 175-76; Blomberg and Kamell, *James*, 219-20; McCartney, *James*, 232.

27) BDAG, 988. ‘고생’(ταλαιπωρία)으로 번역된 단어는 ‘비참함’(wretchedness), ‘괴로움’(distress) 또는 ‘고통’(misery)을 의미한다.

28) ‘고생’(ταλαιπωρία)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3:16에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파멸’(σύντριψις)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고(‘파멸과 고생’), 이 로마서의 표현은 칠십인역 이사야서 59:7(‘황폐와 파멸’로 번역됨)에도 사용되었다. 로마서뿐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죄악 아래에서 행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라도 하나님의 궁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통곡하면서 울어야 한다.<sup>29)</sup> 본문은 그들에게 그 고생이 언제 임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5:5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지칭하는 ‘살륙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sup>30)</sup> 5:3에서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말세에’(ἐν ἐοχάταις ἡμέραις; 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 이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을 지칭하겠지만 그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은 이미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야고보서의 저자는 부한 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열거한다. 그들이 가진 재물은 썩었다. 음이 자신을 ‘좀 먹은 옷’에 비유하며(음 13:28)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듯이, 그들의 아름다운 옷은 이미 좀먹었다(5:2). 그들이 모은 금과 은이 녹슬었다(5:3a). 부한 자들은 금과 은으로 부를 축척하려 하겠지만, 그것들조차 녹슬었다. 잘 녹슬지 않는 은과 전혀 녹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금도 녹슬었다고 묘사하는 이유는 ‘금’과 같이 녹슬지 않는 금속조차도 녹슬게 될 만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남용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부한 자들이 한 때 부의 상징인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지를 끼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대접받았을지 몰라도(2:2-3),

29)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울고 통곡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두 개의 명령형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울고’(κλαύσατε)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령형이고 ‘통곡하라’(όλο λύγουτες)에 해당하는 표현은 분사로서 주동사의 구체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묘사한다. 따라서 ‘통곡하면서 울라!’는 의미일 것이다.

30) ‘살륙의 날’(ἡμέρᾳ σφαγῆς)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없지만 칠십인역·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기 위한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서 12:3에 사용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살륙’(slaughter)이라는 표현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용된다(욥 10; 속 11:4, 7; 사 34:2, 6; 53:7; 램 12:3; 15:3; 19:6; 25:34; 48:15; 50:27; 갤 21:15). 참고. Davids, James, 178-79; Martin, James, 180-81.

31) 참고. J. H. Ropes,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T. Clark, 1973[1916]), 287-88; Davids, James, 175; McKnight, James, 384-85.

지금 그들의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이 녹슨 것처럼 그들의 부는 부질없다.<sup>32)</sup> 계속해서 저자는 녹슨 금과 은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5:3)라고 한다. 그들의 부의 축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금과 은의 녹이 그들 스스로에게 증거 할 것이다.<sup>33)</sup> 그리고 이 녹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한다. 불의 이미지는 이미 3장에서 사용된 것처럼 5:3의 ‘불’의 이미지도 지옥 불을 상징할 것이고,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암시할 것이다. 불의 태우는 이미지와 함께 사용된 ‘먹는다’(ἔοθω)는 동사는 비유적 의미로서 좀 더 강한 표현인 ‘집어 삼키다’(devour)는 의미이다. 즉, 부한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재물을 남용할 때에 그것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녹이 슬고), 그 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그들의 육체를 온전히 집어삼키는(그들을 심판하는) 불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32) 재물이 ‘썩고’(σέσηπεν) 옷이 ‘좀먹고’(σητόβρωτα γέγονεν) 금과 은이 ‘녹슬었다’(κατίωται)는 동사가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저자가 부한 자들의 재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선지자적 완료형(as prophetic perfect)을 썼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Dibelius, James, 236).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 곧 부한 자들이 소유한 것이 이미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 동사를 썼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Ropes, James, 284; Laws, James, 198; Blomberg and Kamell, James, 220-21). 어떤 의미이든지, 분명한 것은 저자가 부자들의 ‘부’를 상징하는 재물과 옷과 금은의 유한성과 의미 없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33)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εἰς μαρτύριον ὑμῖν ἔσται)는 표현에서 여객 ‘너희에게’(ὑμῖν)를 ‘연관의 여객’(dative of reference) 보면 ‘to you’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의 여객’(dative of disadvantage)으로 보면서 ‘against you’로 번역할 수 있다. 전자로 보면 부를 혐비하는 것이 부한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되고, 후자는 그들의 타락이 그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위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본문의 문맥은 부한 자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에게 ‘부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에 대해 증거 하는 듯하다. 참고. Blomberg and Kamell, James, 221-22; Davids, James, 176; Laws, James, 198-99.

5:3부터 저자는 부한 자들이 품꾼들에게 행한 일들을 밝힌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썩고, 좀먹고, 녹슬어 없어질 재물을 쌓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삶을 주지 않는다. 5:4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취하거나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삶은 원래 수고한 품꾼들의 것인데 그것을 주인이 가로챘기 때문이다.<sup>34)</sup>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헛되이 그 재물을 소비한다. 즉,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5:5). ‘사치하다’(*τρυφάω*)는 동사는 단순히 멋을 부리며 사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즐기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흥청망청 사는 모습이고, ‘방종하다’는 표현 역시 제 멋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두 개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품꾼들의 삶을 갈취한 주인들의 삶이 얼마나 방종한 삶인지 강조한다.<sup>35)</sup> 그들의 방종한 삶은 곁으로 드러나는(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내적인) 문제인 그들의 마음을 살찌워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무디어지도록 한다.<sup>36)</sup> 부한

34) 개역개정성경에서 ‘주지 아니한’으로 번역된 표현(ὁ ἀπεστεριμένος)은 ἀποστερέω(‘훔치다’[steal]; ‘도둑질하다’[rob]; ‘사취하다’[defraud])의 수동태 분사로서 ‘주지 아니한’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지만 수고한 자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삶’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주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한 의미, 곧 땅의 주인이 품꾼에게로부터 삶을 사취(도둑질)한 것이 된다.

35) ‘사치하고’(*ἐτρυφήσατε*)에 해당하는 동사(*τρυφάω*)는 ‘방종한 삶을 살다’(lead a life of self-indulgence), ‘흥청거리며 놀다’(revel) 또는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다’(carouse)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방종하다’(*ἐσπαταλήσατε*)에 해당하는 동사(*σπαταλάω*)는 ‘사치스럽게[방탕하게]’(luxuriously), 또는 ‘제 멋대로[방종하게]’(indulgently)사는 것을 의미한다.

36) Blomberg and Kamell, *James*, 22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음’(*καρδία*)은 곧 한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은 그들 자신을 살찌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10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마음의 살을 찌우는 것은 곧 무엇엔가 무디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참고. *Laws, James*, 203). 따라서 야고보서 4:8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자들은 품꾼들에게 줄 삶을 갈취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한다(5:6). 이는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약 2:6 참고). 부한 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품꾼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sup>37)</sup>

부한 자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4:13)고 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상인들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을 것이다.<sup>38)</sup> 부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정죄할 자들이 없고 품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록 품꾼들이 세상 법정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갈취당한 삶이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5:4). 이러한 표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가인의 대답에 대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땃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는 말씀을 상기시킨다.<sup>39)</sup> 악한 일을 행한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악행이 드러나지

37) 학자들은 유대 문헌에서 이웃을 못살게 구는 것 자체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인용하면서(집회서 34:22),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정죄하고 죽였으나’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죄하고 죽였으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표현만은 아닐 것이다. 참고. Moo, *James*, 209-210; Blomberg and Kamell, *James*, 224-26.

38) 야고보서의 저자는 4:13-17에서 상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유한성(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4:14)을 지적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4:13의 것과 같이 말할 것이 아니라 4:15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39) Moo, *James*, 206-208; McKnight, *James*, 392; Richardson, *James*, 211; Blomberg and Kamell, *James*, 222-23.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억울한 피와 돈 자체가 소리를 질러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한다.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행을 알고 계신다.

5:6b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앞선 구절(5:4)에서 언급한 부한 자들에 대해서 착취당하는 품꾼들, ‘만군의 주’께 울부짖는 자들을 더 구체화시킨다. 그들은 모든 가난한 품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인들이다. 저자는 의인은 부당한 대우와 갈취에도 불구하고 5: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께 울부짖는다고 말한다. 의인의 이러한 모습은 1:2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과 1:5-6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두 마음을 품지 말라) 구하라는 저자의 권면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할 때 ‘만군의 주’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한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sup>40)</sup> 또 다른 한편으로 5:6에 나타난 ‘의인’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형제들이!”로 시작하는 5:7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sup>41)</sup> 5:1-6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인내해야 할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권면할 것이다.

40)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Lord of hosts)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구약적 배경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군대의 지도자로 묘사하는 것이다(사 5:9; 참고. 시 17:1-6; 18:6; 31:2; 놀 18:17; 계 6:10). Moo, *James*, 207,가 주장하듯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이 땅의 군대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를 지칭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주 묘사되는 바와 같이(특히 이사야서 5-6장) 가난한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J.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6-87도 보라.

41) 5:4에서는 시련을 당하는 자를 단순히 ‘품꾼’이라고 했지만 5:6에서는 ‘의인’이라고 했고, 이를 근거로 저자는 5:7부터 수신자들을 향해서 인내할 것을 교훈하기 시작한다.

#### 4. 의인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5:7-12)

야고보서 5:7-12에서 저자는 부한 자들로부터의 압제 당하는 수신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음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인내하라고 권한다. 이 단락에서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이 왜 인내해야 하는지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보라 농부가 [그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때까지 [그 열매]에 대해 인내하며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5:7)의 본을 보라고 한다. 농부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한다.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열매를솎아주고, 가지를 치는 것 등 수많은 일을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그 열매에 대해 인내하면서<sup>42)</sup>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sup>43)</sup> 농부의 일은 고되고 힘들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42) 개역개정성경에서 “길이 참아”(μακροθυμῶν ἐπ' αὐτῷ)로 번역된 것은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동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다. ‘길이 참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 μακροθυμῶν ἐπ' αὐτῷ의 전치사 ἐπ(를 영어 번역본에서는 ‘being patient about it’(ESV; NASB), ‘being patient with it’ (NRSV), 또는 ‘hath long patience for it’(KJV)으로 번역을 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는 사실을 지적한다.

43)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중해 분지에 살던 자들에게는 익숙한 추수기를 말한다(이른 비와 늦은 비 이후인 가을과 봄). 즉,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늦은 비는 3-4월에 집중된다(참고. 신 11:14). 따라서 농부는 이 두 시기에 충분한 비가 와서 그 열매가 물을 잘 흡수하여 좋은(값비싼) 상품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Lasw, *James*, 212-13,는 구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the gift of God)이었으며 호세아서 6:3에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겨울비와 봄비에 비유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 자체가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한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5:8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언급한 문맥과도 잘 맞는 듯하다.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했고(1:12), [하나님]‘나라’를 상속 받을 것이라고 했다(2:5).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더더욱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5:8).<sup>44)</sup>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인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한다(5:9). ‘원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평하는 것’(complain)이다. 그런데 여기 ‘서로’(*κατ* ἀλλήλων; 문자적으로는 ‘서로에게 대항하여’)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이는 원망의 표적이 상대방을 향한다는 말이고 따라서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4:11-12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을 만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5:9이 4:11-12과 내용상 연관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하나님과 같이 되어 행동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8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던 것과 같이 5:9에서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할 때도 ‘서다’(*ιστ*ημ)의 완료형 동사(*εστηκεν*)가 사용되었다. 이는 심판주가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심판주가 오시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불평하며 비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선지자들과 육의 예를 들어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시련

44)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에서 동사 ‘가까우니라’(*πίχτυκεν*)는 완료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주님의 강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 Blomberg and Kamell, *James*, 227-28.

중에 인내할 것을 말하되, 특별히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에 대해 권한다.<sup>45)</sup> 야고보서 5:10-11에서 제시한 선지자와 육의 모범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툴락(G. M. Stulac)이 제시하듯이 고난(시련)과 인내와 복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sup>46)</sup> 로스(S. Laws)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과 관련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사역 중에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거절을 경험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역을 포기하는 유혹도 감수해야함에 대해서 지적한다.<sup>47)</sup> 이와 유사하게 데이비스(P. H. Davids)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sup>48)</sup> 무(D. J. Moo)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려고 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sup>49)</sup> 리차드슨(K. A. Richardson)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약 1:21)은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말씀을 받은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 같은 말씀 때문에 선자들은 불평하기보다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고통 중에서 동일한 인내심을 가지도록 부름 받았다.”<sup>50)</sup>

45) 고난과 인내와 관련하여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자들로 여겨질 법도 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5:17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수신자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 그러니 고난과 인내로 점철되었던 선지자들의 삶은 현재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실재적인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McCartney, *James*, 242-43.

46) Stulac, *James*, 172-73,은 “고난이 선자들의 삶에 들어오고, 인내는 선자들의 반응이며, 복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 요소의 연속적 발전과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됨을 이해시켜 한다고 주장한다.

47) Laws, *James*, 214.

48) Davids, *James*, 186.

49) Moo, *James*, 215-16.

50) Richardson, *James*, 224.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5:10-11에서 제시된 선지자와 육을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의 뜻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이르는 모범으로 제시하는 듯하다.

앞서 제시된 학자들의 주장은 분명 사실이지만, 어쩌면 5:10-11은 고난과 인내를 넘어 ‘말하는 것’까지도 연관시키는 듯하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았을 때 5:7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다루지만 5:10의 바로 앞 구절인 5:9의 초점은 인내하는 중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인내하는 중에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10에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이라는 추가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선지자들을 부연 설명한다. 이는 분명 5:9에서 형제를 대항하여 원망의 말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듯하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선지자들의 모습은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시련 중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늘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처치(C. Church)가 지적했듯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이라는 표현은 불의를 비난하는 수사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sup>51)</sup> 또는 블롬버그와 카멜(C. L. Blomberg and M. J. Kamell)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신자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변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sup>52)</sup> 그러나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의미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라는

의미일 것이다.<sup>53)</sup>

저자는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제시한 후에 다시 육을 또 다른 예로 제시한다. 육은 자타가 공인하는 고난 중에 인내한 자의 대명사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문맥이나 선지자들의 예가 단순히 고난과 인내만을 말하지 않듯이 육의 경우도 고난과 인내 중에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성경의 육이 고난과 인내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sup>54)</sup>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육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일 것이다. 육기 42:7에 “여호와께서 육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육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고 했다.<sup>55)</sup>

53) 야고보서 1:18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다. 그리고 1:21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다. 이후에도 계속 말씀과 행함에 대해서 언급한다(1:22, 23, 25). 이는 신자의 믿음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54) 어떤 이들은 성경의 육기서가 육을 자신에게 닥친 환경에 대해 투덜거리고 독선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육이 인내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육을 야고보서의 저자가 묘사한 것처럼 묘사하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유대 문헌인 ‘육의 언약’(Testament of Job)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Davids, James, 187; Laws, James, 215-16을 보라). 그러나 맥나이트 외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지적하듯이, 고난 중의 인내가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McKnight, James, 220-21; Martin, James, 194; Richardson, James, 226). 뿐만 아니라 Blomberg and Kamell, James, 230,이 다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육은 절대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육의 말하는 방식을 칭찬했다(육 42:7). 참고. H. A. Fine, ‘The tradition of a patient Job’, *JBL* 74 (1955), 28-32.

55) After the LORD had spoken these words to Job, the LORD said to Eliphaz the Temanite: My anger burns against you and against your two friends, for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ESV).

51) C. Church, “James,” in *Hebrews-James* (ed. Edar V. McKnight and C. Church; Macon, GA: Smyth & Helwys, 2004), 407. Blomberg and Kamell, *James*, 229에서 재인용.

52) Blomberg and Kamell, *James*, 229.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융과 그의 친구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융의 말’과 ‘친구들의 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융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융의 그것과는 다르게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42:8에 다시 한번 더 언급된다. 융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융기 42:8-10에는 융이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sup>56)</sup> 이는 분명 5:9에서 언급한, 고난 중에 인내하지만 형제들과 서로 원망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융이 기도할 때 그의 곤경을 돌이키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42:10). 야고보서의 저자는 융이 인내하는 모습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목적)도 주목하게 한다.<sup>57)</sup> 그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사실이다(5:11). 융이 인내했을 때 이전보다 더 잘 된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그를 궁휼히 여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라는 말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나 주님에 대해 바르게 말한 융의 예를 듣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았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처럼 행하는 것이다.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5:12a)고 한다.<sup>58)</sup>

56) 5:10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한 이후에 5:11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개역개정성경에는 ‘인내하는 자’ 단수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복수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했다. 그리고 융을 또 다른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융이 친구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 듯하다. 이는 융기 42:8-10에서 융이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Laws, James, 215-16.*

57) ‘결말’ (*τέλος*)로 번역된 명사는 마지막 결론을 의미하는 ‘끝’(end)이나 ‘뜻’(end)이나 ‘목표’(goal) 또는 ‘결과’(outcome)를 의미할 때도 사용된다. 따라서 ‘주께서 주신 결말’(문자적으로는 ‘주의 결말’ 혹은 ‘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융을 위해 계획하신 뜻(목적)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융의 삶에 보여주신 결말을 의미할 수 있다. Blomberg and Kamell, *James*, 230; Martin, *James*, 195을 보라.

몇몇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수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인가(신용?)를 얻기 위해서, 혹은 부한 자들로부터 품삯을 더 받거나 그들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현재 당면한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sup>59)</sup>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맹세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저자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한다(5:12b). 즉,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의미이다. 메카트니는 이를 “항상 진리를 말하고(맹세 아래서가 아닌) 항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맹세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닌)”는 의미라고 바르게 지적한다.<sup>60)</sup>

그러면 ‘예’와 ‘아니오’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어쩌면 앞서 제시된 선지자들과 융의 모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여호와에 대하여 말할 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앞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와 ‘아니오’의 기준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와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는 것이다. 사실 고난 중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앞서 야고보서 5:19-20을 다루면서

58) 맹세를 금하는 구절은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몇 번 나타난다. 하늘이든 땅이든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마태복음 23:22(“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것에 포함된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33-37에 맹세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다. 특히 5:36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겸게 할 수 없음 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력함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아무리 맹세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하늘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다. 참고. McCartney, *James*, 245-49.

59) Blomberg and Kamell, *James*, 230-31.

60) McCartney, *James*, 245.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록목적이라고 했다. 어쩌면 부한 자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거나, 아니면 속으로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거나 이와 반대로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옳지 않다고 말하라고 권한다.<sup>61)</sup> 그렇게 할 때 ‘정죄 받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 5. 요약과 적용

### 5.1 기록목적과 문맥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 혹시라도 스스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기록된 서신으로 볼 수 있다(5:19-20). 특히 5:7-12은 여러 가지 시련 중에 부한 자(권력자)들로부터 시련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룬다. 이전 문맥인 5:1-6에서는 부한 자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부한 자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금은과 재물을 쌓고 약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착취와 억압하면서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다(5:4-6). 그러나 그들은 말세의 때를 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마지막 심판의 때 곧 살륙의 날이 임할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해야만 했다(5:1-3). 3.1운동과 관련해서 본문을

61) McCartney, James, 247,는 “맹세의 사용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것은 불신을 의미 한다. 믿음은 항상 그것이 ‘예’라고 말할 때는 ‘예’를 의미한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내하며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항상 그들의 약속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적용시켜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부한 자(권력자)는 당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권력을 휘둘렀던 일본(또는 우리 민족 중 일본의 편에 선 자들)에 적용할 수 있다. 그들은 영원토록 이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며 한국인들 위에 군림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심판의 때(살륙의 날)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했다. 그 날에 임할 고생을 생각하며 지금 울고 통곡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 5.2 의인이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

부한 자들로 인한 고난에 직면한 의인들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모든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곧 임할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한다(5:7-8). 그러나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 의인들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 그들처럼 고난의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 한다(5:9-10). 또한 육과 같이 온갖 고난 중에도 주님에 대해 바르게 말해야 한다(5:11). 고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5:12).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뿐이다. 때로는 고난 중에 서로를 원망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인은 곧 오실 심판 주를 기다리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육기에서 보았던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의인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에 적용할 수 있다. 일제의 강제 점령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큰 고난을 받았다. 이들이 견뎌야 했던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본의 지배와 탄압의 끝을 기다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그래서 하루속히 독립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삼일운동이 일어난(1919.3.1) 해를 기점으로 해서 26여년 이후에 독립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26여년의 세월을 더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인내해야 했다.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원망하는 것이다(1:13). 그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했을 것이다. 심지어 일을 속히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육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농부가 마침내 얻게 될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듯이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했다.

글 초두에 1919년 3.1 운동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 특히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 지도자라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 중 2인은 확실한 친일파가 되었다고 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 중 친일파로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과 일제의 권력(또는 편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변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섰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규무는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의 법정 진술을 기록해 놓은 취조서를 조사했는데, “피고는 금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변절자 2인중 박희도는 “독립운동은 그 때 보아야 알 것이다”고 답했고 정춘수는 “최초 목적을 달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종교사업이나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sup>62)</sup> 이와 같은 대답과 그 이후의 그들의 변절에 대해 한규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즉, “결과론인지는 모르나, 독립운동 중단 의지를 밝힌 정춘수와 분명한 답변을 유보한 박희도가 결국 ‘변절’했다.”<sup>63)</sup> 그리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자들은 적어도 변절하지 않았다.

62) 한규무, “기독교계 민족대표 중 누가 변절했는가,” 26-27.

63) 한규무, “기독교계 민족대표 중 누가 변절했는가,” 27.

한규무의 이러한 결론은 고난 중 인내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말하고 또 ‘예’와 ‘아니오’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야고보서 5:7-12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 6. 나가면서(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시련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다. 특별히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가진 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일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족 간(갈질의 문제), 기업 간(대기업과 중소기업), 국가 간(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문제) 외에 모든 권리와 재력의 불평등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다. 야고보서 5:7-12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압제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시련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자세를 제공한다. 즉, 농부가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인내할 수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육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와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현재의 상황을 피하거나 유익을 얻기 위해 맹세를 남용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과의 정치적 대립관계가 경제 문제를 거쳐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주기철.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πειρασμός)과 ‘시련’(δοκίμιον)으로 번역된 단어 재고,” 『고신신학』 20 (2018): 103-130.
- 이만열. “3.1운동과 한국교회,” 『2019 기윤실 회원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강연집』 (2019): 1-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제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 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협사, 한국독립운동사학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9 (2018): 87-126.
- 한규무. “기독교계 민족대표 중 누가 변절했는가,” 『기독교사상』 722 (2019): 20-31.
- Adamson, J.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ahr, G. J. ‘The Subscriptions in the Pauline Letters,’ *JBL* 87 (1968): 27-41.
- Black, D. A. ‘The Literary Structure of 1 and 2 Thessalonians,’ *SBOT* 3/3 (1999): 46-57.
- Blomberg, C. L. and Kamell, M. J. *Jame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Davids, P. H.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The Paternoster Press, 1982.
- Dibelius, M. *James*, Philadelphia: Fortress, 1975.
- Fee, G.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elder, Cain H. “James” in *The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ed. William R. Farmer; Collegeville: Liturgical, 1998), 1786-1801.
- Fine, H. A. ‘The tradition of a patient Job,’ *JBL* 74 (1955): 28-32.
- Francis, F. O.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Opening and Closing Paragraphs of James and 1 John,’ *ZNW* 61 (1970): 110-26.
- Gamble, Jr. H. *The Textual History of the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77.

- Hartin, P. J. ‘Exegesis and Proclamation. “Come now, you rich, weep and wail...”(James 5:1-6),’ *JTSA* 84 (1993): 57-63.
- Holloway, G. ‘James as New Testament Wisdom Literature,’ *Leaven* 8 (2000): 1-7.
- Jervis, L. A. *The Purpose of Romans: A Comparative Letter Structure Investigation*, Sheffield: JSOT Press, 1991.
- Laws, S. *The Epistle of Jame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0.
- Marshall, I. H., Travis, S. and Paul, I.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A Guide to the Epistles and Revelation* (2nd ed., London: SPCK, 2011).
- Martin, R. P. *James*, Waco: Word Books, 1988.
- McCartney, D. G. *Jam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9.
- McKnight, S. *The Letter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2011.
- Moo, D. J. *Jame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5.
- Richardson, K. A. *Ja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7.
- Ropes, J. H. *The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 T.&T. Clark, 1973[1916].
- Stulac, G. M.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3.
- Wall, R. W. ‘James as Apocalyptic Paraenesis,’ *RQ* 32 (1990): 11-22.
- Weima, J. A. D. *1-2 Thessalonians*, Grand Rapids: Baker, 2014.
- Weima, J. A. D. *Neglected endings: The Significance of the Pauline Letter Closings*, Sheffield: JSOT Press, 1994.